

# 새터민의 결핵관리

글 □ 전정희(통일부 하나원 간호사)

**이미**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새터민은 8천여 명,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새터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착지원, 기초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나원의 역할 중 교육생에 대한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원은 교육생이 입소하여 3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전파차단 및 환자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생 관리시 중점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또한 전염병 환자에 대한 자료축적 및 질병관리는 통일을 대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원 교육생들이 가진 질병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보지 못한 복한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복한 및 제3국 체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동료 교육생 및 내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하나원은 전염병 관리에 있어 원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새터민들이 복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 복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식량부족과 극심한 생활고는 탈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함께 기존 의료제도의 붕괴(복한은 예방의학 부분

에서 통계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음)로 연결되면서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어 감염되거나 발병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결핵에 감염이 되어도 탈북 후 도피생활과 안정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였으며 치료를 받은 경우도 초기 치료를 잘못하여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평생 결핵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도 있다. 현재 하나원 입소 인원(6,763명) 대비 결핵환자는 102명(1.5%)이며 결핵의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요하는 환자는 145명(2.1%)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터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파악한 특성을 살펴보면, 탈북 및 은둔생활에 수반한 심신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불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심리적 갈등에 근거한 다양한 신체화 장애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감의 결여로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과도한 증상호소와 지나친 근심, 걱정을 호소하며, 재북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 못하여 신체증상(아픔)이 있을시 무작위 약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며, 과거병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상존한다. 특히 구강 위생관념의 부족

으로 치아상태가 불량하며 치아부재로 인해 저작곤란 및 만성소화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남한에서 강도 높은 노동일을 하는 경우 잘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신허약감, 잦은 구내염, 만성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며 하나원 퇴소 후 일자리를 제공받기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건강상의 특징은 새터민들이 사회에 나간 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된다.

새터민들의 결핵감염율은 내국인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국내 입국 새터민 중 84~85%가 결핵 피부반응검사상 양성반응 소견을 보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재적 결핵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에 대한 건강관리는 입소 전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결핵환자로 진단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흉부 x-ray촬영과 객담검사를 통한 균주검사 실시 후 균배출시 원칙적으로 격리치료를 시행한다. 단체생활이 가능할 경우 동료 교육생들과 생활을 하도록 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는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자격 있는 영양사가 짠 식단에 근거한 수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하나원 퇴소시 교육생이 체중증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원에서 관리를 받은 교육생은 퇴소시 병원진료 소견서, 결핵약 1개월분, 필름 복사분을 본인에게 소지하도록 한 후 퇴소를 시키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본인 주거배정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결핵환자로 진단을 받은 교육생 중에는 난치성폐결핵 소견을 보여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및 관리가 요구되는 교육생도 있다. 결핵 초기 6개월 이상 결핵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결핵약을 복용함으로써 내성이 생긴 경우도 왕왕 있어 결핵약을 쓰는 데 한계가 있는 교육생 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환자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원 퇴소 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대상자들이 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결핵치료 중간단계에서 투약을 중단하는 사례, 이들에 대한 추적관찰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결핵환자관리 시스템에 새터민을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새터민에 대한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도우미로서 희망사항이 있다면 하나원 퇴소시 질병환자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다. 새터민의 건강관리는 향후 의료비(의료급여)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소인이 되므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전염병 관리시스템과 하나원 퇴소 교육생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추후관리가 되면 새터민의 관리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새터민들이 초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희망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을 쓴 전정희 님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의 건강도우미로 생활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용어들이

**하나원** : '남과북이 하나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새터민**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거리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정착 의지를 고취시키지는 의미로 '북한이탈주민'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